ZOOM IN

모든 주민의
건강지킴이 전라북도지회

전라북도는 삼한시대 마한국의 중심지였으며 중심도시인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자 조선조의 발원지로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고장이다.
1962년 11월, 이곳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설립되어 41여 년간 전북도민을 위한 가족보건복지 증진에 진력해 왔다. 향후 더욱 새로운 모습과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족보건의원에서는 5명의 전문의가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과 보육시설 어린이, 학생건강검진 및 산업장 및 기관단체 방문검진을 위해 5개팀의 이동검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유전자 검사 사업을 준비하여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 위탁, 도민 건강검진

전라북도와 각 시 · 군 보건소 및 도교육청의 재정지원과 행정 협조를 얻어 취약계층 여성 8,000명을 대상으로 골밀도검사 및 갑상샘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학 전 어린이 18,500명을 대상으로 심전도검사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초등학교 5학년 12,00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돕고 있다.

암 검진 및 종합건강검진

일반인은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지원 암 검진(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과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101명의 조기 암 확진자를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는 등 도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비롯한 체력, 중독, 호기심, 우울/폭력,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알코올저항성, 고혈압, 폐암, 비만유전자 등 13종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 대덕유전자 기술과 협력하여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하고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장애인 성(性)폭력 상담소

청소년을 비롯한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성(性) 폭력 상담, 의료서비스,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등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문제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각종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 마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성폭력 예방 캠프,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아름다운 성(性) 가꾸기 캠프", 청소년 성 이동검진,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자녀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재가복지사업으로 80명의 독거노인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 외에 자원봉사자 80명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매주1회 반찬 제공 및 월2~3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정방문, 효도관광, 이 · 미용, 빨래,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후원자를 통해 각종 생활물품 지원과 후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 개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회의실 개방

월1회 직원 상 · 하간에 원활한 관계 및 인화 단결을 위해 고충처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 일내 해결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실을 개방하여 스포츠 댄스 교실을 운영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